대한지리학회지 제36권 제4호 2001 (343~355)

왜 풍수는 중요한 연구주제인가?

윤 홍 기*

Why is Geomancy an Important Research Topic for the Korean Geographers?

Hong-key Yoon*

요약 : 풍수지리설은 재래 한국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사회 일각에서는 풍수신앙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풍수지리설은 중국 황토고원의 굴집을 마련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한국에 전파되어 고대부터 한국의 문화경관 형성과 한국인의 땅을 보는 의식구조(geomentality)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근래 지리학자들이 풍수연구를 외면하는 경향은 지리학자들이 지관으로 몰리고 지리학이 풍수학으로 오인될까 염려한데 그 큰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풍수지리설의 옳고 그름은 신앙차원의 문제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명당을 찾는 지관을 축구경기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에 비유한다면 풍수를 연구하는 학자는 축구 관전평을 쓰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풍수를 연구하는 지리학자는 풍수신앙을 객관화 하여 학적으로 따져보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어 : 풍수지리, 지관, 한국문화, 지리학자, 지오멘탈리티

Abstract : Geomancy (feng-shui in Chinese and Pungsu in Korean)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Korean culture and is still practiced by many Koreans. This art is thought to have originated from the early Chinese people's search for an ideal site for preparing a cave dwelling. Ever since geomancy was introduced to Korea, it has been a crucial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ultural landscape and the Korean geomentality.
The current tendency of avoiding research into geomancy by the Korean geographers might have developed from their desire to avoid wrongly labeling themselves as geomancers and their discipline as geomancy studies. The geographer's aim of studying geomancy is not to prove the truthfulness of geomantic doctrines, but is to document and explain the impact of geomancy on the Korean culture.

Key Words : geomancy, geomancers, Korean culture, geographers, geomentality

1. 들머리

1994년에 한국사학지, 『韓國史 市民講座』 제14집은 한국의 풍수지리설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이 특집에서는 한국의 풍수신앙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한국사 연구에 풍수지리설이 중요하다는 것과 사학자들이 풍수지리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민속학회에서는 1997년에 풍수사상을 주제로 제26회 민속학 전국대회를 열어 7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2001년 11월 9일에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풍수지리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그 다음 날인 2001년 11월 10일에는 한국사상사학회에서 풍수지리를 주제로 하여 학술대회를 열고, 그 학회지를 풍수지리사상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문학자들의 풍수설화 연구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건축학자와 조경학자들의 풍수관계 논문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Auckland).

나 빨리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학계 동향은 국회 전자도서관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검색어 "풍수"로 검색했을 때 떠오른 국내 학술잡지 논문목록에서 153개의 풍수관계 논문과 국내 석박사 논문 중 88개의 풍수관계 논문을 한번 살펴 볼 때에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느 한국지리학 학술지가 풍수지리에 관한 특집을 내서 풍수를 평가해 본 적이 없고 어느 지리학대회에서도 풍수지리를 주제로 하여 심도있게 토론해 본 적도 없는 것 같다.

한국의 국토는 구석구석이 풍수의 세례를 받아왔고, 한국인의 일상 생활을 포함한 전통문화는 풍수와 연결된 면이 많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 볼 때 풍수지리는 한국문화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구주제이다. 풍수원리를 알지 못하거나 풍수술이 한국문화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풍수와 연관된 연구과제는 실로 흥미진진하게 산적해 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풍수지리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 지리학계에서는 풍수지리의 학적인 연구를 대체로 외면하고 있고, 따라서 풍수지리를 학적으로 깊이 다룬 논문을 최근 지리학 학술잡지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우리 지리학자들이 풍수지리 연구에 있어서 제 구실을 하지 않다가는, 다른 분야에서 지리학자의 몫까지 다 연구해버리고, 지리학자들은 '제 밥 찾아 먹지 못했다'는 지탄을 듣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적은 풍수지리연구에 대한 지리학계의 태도를 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연구진로를 생각해 봄으로써, 한국지리학에서 풍수연구의 자리 매김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이 글은 먼저 풍수지리설의 원리와 기원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명당찾기를 업으로 하는 지관과 풍수를 연구하는 지리학자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다음, 지리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풍수 연구주제를 점검하는 순서로 구성되었다

1) 풍수의 본질과 그 기원

풍수지리설은 옛 사람들의 주거지 선정에서 특히 중국 황토고원의 요동(窯洞, 즉 굴집)을 지을 터를 잡고 황토 속으로 굴을 파서 방을 만드는 데서 비롯된 소박한 기술이 음양오행설로부터 이론적인 뒷받침을 받게 되어 자랐다고 생각된다(윤홍기, 1994). 풍수란 말 자체가 장풍득수(藏風得水)에서 왔다는 것은 곽박(郭璞)의 장경(葬經)으로부터 비롯된 말이다. 풍수에 있어서 장풍득수의 입지론이란 주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적 조건과 좌향(坐向)으로 풀 수 있다. 풍수에서 찾고 있는 좋은 땅 (明堂)자체는 마른 땅이어야 하나 뒤에 산이 있어 찬 바람을 막아주고, 앞으로 물을 가까이 하고 있는 곳이란 의미이다. 이러한 땅은 사람이 안락의자에 앉는 것과 같은 주위 환경으로서 전면이 해를 잘 받는 (남쪽)방향으로 트이고 나머지 세 방향이 산이나 언덕으로 에워쌓인, 즉 우리 농촌에서 쓰던 삼태기같이 생긴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뒤(북쪽)에 산이 있어 겨울에 추운 시베리아 바람을 막아주고, 앞(남쪽)에 냇가나 호수가 있어 햇볕 받기 좋은 땅이 복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조건은 중국 북부 황토고원에서 주민들이 추운 겨울에 살아 남기에 좋은 환경이다.

풍수의 택지 원리들을 분석해 보면 묘지건 집터이건 간에 근본적으로 터 잡는 원칙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기본 풍수원리는 모두가 사람의 이상적인 집터 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황토고원의 황토굴집을 마련할 때 절실히 필요한 조건들이다. 그러면 왜 죽은 사람이 묻혀 있는 터가 살아있는 사람의 집터와 같은 조건이어야 하는가? 이는 죽은 사람의 사후 생활을 산 사람의 생활에 비추어 유추해 내어 죽은 사람도 산 사람과 같은 생활조건을 필요로 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양택과 음택의 원리가 같고 그 원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상적인 집터 조건을 충족하는 것인 지를 설명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풍수의 택지원리를 음미해본 결과 다수의 학자들이 말해온 풍수의 택지술이 음택으로부터 출발하여 양택에도 적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틀렸다고 보고, 오히려 그 반대로 풍수의 택지원리는 양택에서 개발된 것이 음택에도 적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1)]

2) 한국 풍수신앙의 기본원칙

풍수지리설에서 말하고 있는 길지 조건과 발복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볼 수 있다.

여기에 열거된 것들은 1976년에 출판된 졸저의 일부를 요약 설명하는 것이다(Yoon, 211-228).

첫 번째, 풍수에서는 광범위한 한 지역 전체나 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지형의 일부분, 다시 말해 그 곳의 산이나 언덕을 각각 한 개의 시스템으로 본다. 예를 들어 경주 지역의 풍수형국을 나는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飛鳳抱卵形), 또는 떠가는 배(行舟形)로 봤을 때 경주지역 전체는 한 개의 시스템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그런데, 경주의 풍수형국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 다시 말해서, 주산, 청룡, 백호 및 안산도, 예를 들면 봉황의 머리나 날개 또는 배의 돗대 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지역 풍수형국 시스템 속에 있는 작은 시스템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풍수에서는 경관을 의인·의물화해서 자연을 파악한다. 예를 들자면 경관을 장군이나 황소나 연꽃같이 한 개의 살아있는 생물체나 아니면 나룻배나 가마같이 사람이 만든 물체로 보는 것이다.

세 번째, 풍수에서는 길지가 되는 장소의 조건으로 항상 평형이 유지될 것을 요구한다. 좌우가 청룡 백호로서 대칭되어야 한다든지 그 중앙의 주산 밑이 풍수혈이라 해서 중심이 잡혀 평형이 이루어지는 곳을 중요시하는 면을 보면 알 수 있다.

네 번째, 풍수에서는 환경이 인간에 의해서 쉽게 파괴될 수도 있고 그 파괴된 땅이 인간에 의해서 회복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 환경론자의 생각과 근사한 면이 있다.

다섯 번째 음택 풍수가 성행한 이유는 조상과 자손의 기(氣)가 같아서 조상의 뼈가 길지(吉地)에 묻혀서 그 곳에 고여 있는 생기를 타게 되면 그 감응된 기가 살아 있는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믿는 것 때문이다. 이러한 죽은 조상과 살아있는 자손의 관계를 '동기감응'이라고 한다. 이 '동기감응'이란 말은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朝鮮の風水(조선의 풍수)』에서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지금도 널리 쓰여지고 있다.

여섯 번째로 풍수고전술서에서는 풍수이론은 거의 과학적인 원리를 다루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삼태기 같은 땅이 길지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특정 형태의 땅을 차지하면 특정한 효험이 있다는 식이다.

일곱 번째로 한국 풍수 설화에는 길지가 주로 착한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고 나쁜 사람은 이러한 곳을 차지하여 묘를 쓰고 집을 짓고 살아도 발복이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가끔 나온다. 명당을 차지하기 위하여는 오래도록 적선해야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한 민간풍수신앙은 풍수술서에 있는 풍수이론이 나름대로는 거의 객관적인 원리로서 정리된 면에 위배되지만 한국 풍수신앙에서는 윤리가 중요하다는 면을 보여준다.

2. 풍수술과 지관, 풍수 관전평과 지리학자

근대 풍수지리에 대한 자료조사와 연구서로는 아무래도 일본사람인 무라야마 지준이 1931년에 쓴 『朝鮮の風水(조선의 풍수)』가 처음일 것이다. 그는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있으면서 구한말 황실 지관을 포함한 당대 명 지관들로부터 방대한 풍수 자료를 조사 정리하였다. 현대 한국인 학자로서 풍수지리설이 한국문화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여 처음으로 저서로 낸 학자는 이병도이다. 그는 1948년에 펴낸 그의 저서 『高麗時代의 硏究』에서 풍수지리가 고려시대의 정치사회 현상에 미친 영향을 고증 정리하고 평가하였다. 윤홍기의 *Geomantic Relationships Between Culture and Nature in Korea* (한국 풍수 지리설의 문화와 자연관계)는 1976년에 영문으로 외국에서 출판된 관계로 서양에 있는 학자들에게는 꽤 활용되었으나 한국 학자들에게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근래 풍수지리 연구에 있어 가장 많이 읽히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책은 최창조가 쓴 『한국의 풍수사상』일 것이다. 이 책은 1984년에 출판된 뒤 풍수지리가 무엇인지를 전문학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풍수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실학자들의 풍수사상에 대한 그의 연구나 풍수고전술서의 번역 및 취락의 풍수입지조건에 대한 연구는 풍수의 학적 연구에 큰 공헌을 했다. 그는 여러권의 풍수 관계 저서를 쓰고 학술잡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 풍수에 관해 발표해 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의 풍수 연구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풍수지리설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게 한

것으로 보인다.

요즈음 상당수의 지리학자들은 풍수를 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풍수를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는 것 같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 일부에서 지리학자와 지관을 동일시하는 소리가 들리자 (일부) 지리학자들이 지리학은 '풍수지리나 신봉하고 가르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풍수 연구와 무관하다는 인상을 부각하려 했고, 풍수지리설은 지리학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만약에 지리학자가 지관으로 오인되곤 했었다면, 혹시 풍수를 연구하는 지리학자들이 지관들이 하는 말을 하고 그들이 쓸 수 있는 식의 글을 쓴데에서 온 것은 아닌가하고 스스로 물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지리학이 세칭 '혹세무민'의 풍수지리설로 매도되고, 지리학자가 지관으로 매도된다면, 한국 지리학계에게는 치명타일 수 있다. 만약 지리학자들이 이런 이유에서 풍수지리설 자체의 학적인 연구 뿐만이 아니라 풍수설이 한국문화지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까지도 기피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에는 일종의 자기방어적인 심리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풍수술을 업으로 하는 지관과 풍수신앙현상을 객관화하여 연구하는 학자는 다르다. 지관과 풍수를 연구하는 학자의 차이를 단순히 지관이 명당을 잡아주고 돈(댓가)을 받는 대신 학자는 돈을 안 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표면에 보이는 지엽적인 차이, 즉 포장만 보고 물건의 질을 평가하는 격이다. 그 근본적인 차이는 지관은 풍수적으로 땅을 평가하고 해석하여 땅의 길흉을 예언하는 것이고, 학자는 이러한 지관들의 땅에 대한 풍수적인 평가와 해석(하는 행위)을 가능하다면 객관화하여 따져보고 평가하는 일종의 풍수 관전평을 쓰는 것이다. 지관으로서 풍수를 공부하는 것은 학자로서 풍수를 연구하는 것과는 아주 판이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지관과 풍수를 연구하는 학자가 별개의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혼동해 온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마치 축구선수와 축구평론가를 혼동하는 것과도 흡사하다. 축구 선수를 지관에 비한다면 축구 관전평을 쓰는 사람은 풍수를 학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연구자로 비교할 수 있다. 실제로 축구 선수로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축구 경기를 조감하고 관전평을 쓰는데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선수로 뛰는 사람은 그 경기를 조감하여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록 자기와 관계되었던 경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독특한 견해를 제공할 수 있을 지라도 그 경기 전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바람직한 관전평을 쓰기에 적합한 사람은 지난 날의 축구선수일 수도 있고, 비록 축구 선수가 아니었다 할 지라도 축구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어야 하지만, 그 경기를 선수로 뛰지 않고 경기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관람석에서 주의 깊게 경기를 보고, 되도록이면 양팀을 다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관전평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한다. 비록 불가능에 가깝다 할지라도, 자신이 공부하는 사물을 객관화할 수 있는 데까지 객관화하여 보는 태도가 학문하는 기본 자세인 것 같다. 그래서 정치가와 정치학자는 구별되고, 굿을 하는 무당과 굿과 무당을 공부하는 학자는 구별된다고 생각한다. 구비문학분야를 전공하는 국문학자가 무가(巫歌)를 공부한다고 해서 무당취급을 당할 염려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리학자가 풍수지리를 학적으로 공부하면 지관으로 취급 받기가 쉬운 것 같다. 이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무가를 공부하는 국문학자는 굿을 실제로 한다든지, 무당으로 자처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리학자로서 풍수를 공부한 이가 무당이 굿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명당을 잡아 주고 지관으로 행세한 면이 혹시 있지나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전통적인 중국 문화속에서는 풍수지리와 전통지리학의 한계가 분명치 않아서 풍수설도 지리(학)라고도 하였고, 지관과 지리학자를 모두다 싸잡아 지리선생(地理先生)이라고 부르곤 하였던 것이다(Yoon, 1982, 78).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리선생이라고 할 때 지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나 교사를 지칭하는 것이지 지관을 지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지관과 지리학자를 구별하지 않고 통틀어 지리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전통이 한

국문화에서도 어느 정도 통했었다고 보인다.

셋째, 일반인이 무당이 되려면(무당으로 일하려면) 그 사람에게 신이 내려야(降神)한다. 그러나 일반인이 풍수가 되려면(지관으로 일하려면) 이러한 제약이 없다. 원한다면 누구나 명당을 평가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풍수로 행세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풍수를 학적으로 공부하는 지리학자가 지관으로 혼동되곤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나도 지리학자가 아닌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내가 풍수에 관계되는 것을 좀 공부했고 그것을 논문으로도 썼다고 하면 농담 섞인 말로 '명당 하나 잡아 달라'는 말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다. 풍수를 공부하지 않는 지리학자도 이보다 더 지나친 오해와 가당찮은 부탁을 받곤 하는 모양이다. 서울대 지리학과 한 교수는 몇 년 전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김인, 1993, 4).

> 요사이는 어찌된 셈인지 심심치 않게 안면부지의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즉슨, 선영의 묘가 어디에 있는데, 내가 땅을 어디에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대지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한 땅이 明堂인지 풍수적으로는 좋은 곳인지 고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다. 내가 지리학교수인지는 어떻게 알았으며 지리학교수라면 곧 풍수가라고 생각하고 지리학은 곧 풍수지리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풍수를 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풍수사상 만큼 한국 문화지리학 연구에 중요하면서도 한국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연구주제가 드물다는 것이다.[2] 풍수사상이라는 것은 문화지리학의 중요 관심사인 '자연환경이 인간(문화)에 의해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고 어떻게 이용되었는가'를 전통 중국문화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서양에 있어서 문화와 자연환경이 밀접하게 관계된 사상 중 가장 심도 깊게 오랜 세월을 동해 논의된 사상이 환경결정론이라고 한다면 동양에 있어서 이것에 필적되는 사상이 바로 풍수지리설이라고 생각된다(Yoon, 1982). 이렇게 풍수사상이 한국문화지리 연구에 중요한데 지리학자 자신이 지관으로 오해될까 해서 또는 지리학이 풍수술로 오해 받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풍수를 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이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구는 꼴'이 아닐는지 모르겠다. 이제 풍수에 관한 어떠한 연구 주제들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3. 풍수지리 연구주제

풍수연구주제는 지리(환경) 사상적인 면과 그것이 문화경관형성 및 관리에 미친 영향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리사상적인 면은 환경사상, 자연관 또는 geomentality(땅을 보는 인식체계)등으로 세분하여 볼 수 있고, 풍수가 문화경관에 미친 영향은 묘지나 마을이나 도시를 포함한 풍수적 입지론, 구조물의 풍수적 설계, 경관의 풍수적 관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풍수의 문화지리학적인 면을 공부해 오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풍수 연구주제들을 열거해 보겠다.

1) 환경사상으로서의 풍수

서양에서 중요한 환경사상들을 들라면 글라켄(Clarence J. Glacken)이 그의 저서 *Traces on the Rhodian Shore*에서 말한 대로 idea of designed earth(신에 의하여 계획된 지구라는 사상), idea of environmental influences(모든 것에는 환경이 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상) 그리고 idea of man as a geographic agent(인간이 지리적인 환경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상)들일 것이다. 글라켄은 위의 세 가지가 서양 환경사상사에서 고대로부터 근대까지 지속되는 중요한 사상이라고 말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 있어서 서양에 필적할 수 있는 세 가지 환경사상을 꼽아 보라면 풍수사상, 도교사상, 불교사상을 들 수 있겠다. 이 중에서 풍수사상이 한국인과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특히 서양 환경결정론에 비교될 수 있는 사상이기도 하다(윤홍기, 1982). 한국에 있어서는 도교가 성하지 않았고, 불교의 환경에 대한 사상은 연기설, 불살생 등 환경친화적인 사고가 중요했다. 그러나 옛날부터 문화경관 생성과정과 환경관리에 직접 큰 영향을 미친 풍수지리설이 신라말 이후 극성하여 왔음으로 풍수는 가히 한국의 환경 이용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재래 환경 사상을 회고해 보고 보다 바람직한 환경사상의 창출을 시도하기 위해서도 풍수사상을 검토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환경사상사의 일부로서 풍수지리설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두 가지 연구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풍수술서와 역사상의 학자들이 쓴 풍수관계 (비판)논문에 나타난 환경사상을 발굴하고 설명해 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풍수 설화에 나타난 민중이 풍수를 소화하여 써 온 한국의 환경사상을 읽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풍수사상에 관계되는 한국문화의 전통은 Robert Redfield의 문화전통구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Great Tradition(Elite Tradition: 엘리트 전통), 즉 적은 숫자이면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통에 속한 다고 볼 수 있는 풍수서와 이에 맞서는 학자들의 풍수 (비판)논문들이다. 다른 하나는 Little Tradition(Folk Tradition: 민중 전통), 즉 다수이면서도 영향력이 적은 전통에 속하는 민중에 의하여 구비전승되고 있으면서 풍수신앙을 다루는 신화, 전설, 민담 등을 포함하는 설화, 즉 옛이야기들(folk narratives)이나 속담을 포함한 민간전승의 민속 전통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전통, 즉 Great Tradition과 Little Tradition은 레드필드가 말한대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서 상호교통하는 사이이지만 대체로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전통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Redfield, 71-72).

풍수술서의 저자는 대체로 풍수술에 조예가 있는 학자들에 의하여 저술되었다. 풍수서를 포함한 학자들의 저서는 저자 자신이 자기가 발표하는 글에는 자기 이름이 따라 다닌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발표 전에 잘 걸러서 내 놓아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을 발표한다. 그래서 실제로 적나나한 민중의 태도나 불만이나 소망을 포함하는 속마음을 알아보는 데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풍수서에 나오는 풍수사상은 지식인 계층의 환경사상을 공부하는 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풍수서들은 소수이지만 영향력이 큰 저자들 즉 엘리트 전통이 생산한 풍수사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선비들의 풍수관계 논문들은 풍수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많다. 실학자들이 풍수를 비판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논문도 풍수의 미신적인면 또는 실용적인 면을 따져서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학자들의 글은 풍수서와 함께 풍수사상을 생산하는 엘리트들의 풍수에 대한 태도와 견해를 알아 보는 데 유용하다

민중은 이러한 풍수사상을 소비하는 자들이다. 이들의 풍수신앙이나 자연에 대한 태도 등은 민담이나 전설등을 비롯한 풍수설화에 잘 나타나 있다. 입에서 입으로 대를 물려 내려오는 설화는 지은이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이 상례이다. 그래서 전설이나 민담은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추궁받을 염려가 없음으로 민중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구비민속자료는 민중속에 실제하고 있는 풍수사상을 공부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한국 풍수신앙에 나타나 있는 지리사상 및 환경사상의 연구는 우리 한국지리학이 세계 학계에 공헌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생각한다.

2) 풍수가 한국 경관에 미친 영향

재래 한국 경관을 이해하는 데 풍수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고, 이 분야의 연구는 지리학자나 건축학자들에 의하여 상당히 진척되었다. 문화경관이란 어떤 문화 테두리 안에서 자연경관이 인간에 의하여 개조되어온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문화 경관화 과정에 있어서 풍수가 미치는 영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풍수를 이용한 장소 선정, 둘째는 선정된 곳에 알맞은 구조물을 설계하여 설치하는 것, 셋째는 이것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서로 적응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 넷째는 풍수를 고려한 상징물 축조이다.

(1) 위치선정 (풍수적 입지론)

장소선정은 지형적으로 봐서 삼면이 산이나 언덕으로 둘러 쌓이고 앞(이상적으로 남쪽)이 터인 분지가 좋은 땅인데 이러한 땅은 거의 예외 없이 마을, 도시 또는 무덤을 위시한 문화경관으로 들어차 있다. 풍수를 통해 명당을 찾는 방법은 한국의 전통적인 입지론 중 하나인데, 지리학자를 위시한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한 논문을 썼다. 이제 보다 더 세부적이고 다각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풍수 입지론 자체의 세밀한 정리와 현대 시각에서 본 평가도 중요하거니와 얼마나 많은 한국 전통도시

나 마을의 위치가 어떻게 풍수에 맞추어 계획되고 설립되었는가를 조사,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2) 풍수를 고려한 구조물 설치

우리 조상들은 풍수에 따라 위치를 정한 뒤 어떤 구조물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하여도 풍수원칙을 따랐다. 예를 들면 대지와 건평의 대비, 집 구조 등이 풍수를 고려하여 마련되었고 시가지 계획(city planning)도 풍수를 고려하여 진행되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 태조의 서울 천도와 시가지 및 궁궐의 건설 등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풍수지리설을 고려한 재래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었으나, 주로 서울의 경우에 대해서만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면이 있다. 풍수를 통한 주거지 선택과 집의 구도배치 또는 정원의 조성에 대한 것은 건축학자나 정원학자에 의하여 상당히 연구되어 있다. 한국의 모든 전통 취락과 묘지에 대한 다각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 풍수를 고려한 인간과 자연관계 유지

이렇게 풍수를 이용한 입지선정과 구조물 건설을 통하여 인간이 자연과 관계를 맺은 뒤 한국인들은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해 왔는가 하는 것 또한 우리 지리학도들에게 관심거리이다. 예를 들면 행주형인 형국, 즉 둥둥 떠가는 배 모양으로 마을이나 도시 주위 환경(예: 평양)이 인식된 곳에서는 이 풍수적인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물 파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래서 주민은 보다 깨끗한 우물대신 강물을 길어다 사용했는데 이러한 경우 주민에 미친 공중보건의 영향은 지대했으리라 믿는다. 또 어떤 마을에서는 풍수 지형 조건상 일정 수 이상의 가옥 건축을 제제하여 왔다.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인간은 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주위 자연환경을 풍수적으로 해석했고, 이러한 주민의 해석(풍수형국)은 어떻게 인간 행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조사, 정리,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이러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유지 설명에 있어서 풍수비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4) 풍수를 고려한 상징물 축조

우리 조상들은 사회정치적인 이념과 정권의 권위를 경관으로 표현할 때, 기념비적인 건물을 축조하는데 풍수를 십분 이용하였다. 조선조 태조의 서울 천도와 경복궁 축조는 바로 태조의 정치 이념과 왕조의 권위를 과시하여 새로운 왕조의 정치적인 상징물을 축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일본이 경복궁을 훼손하고 총독부 건물을 지은 것도 일본의 식민지 이념과 일본식민 정권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상징물 축조에 그 의의가 있었다. 경복궁과 조선총독부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상징물 전쟁(iconographical warfare)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풍수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윤홍기, 2001). 왜냐하면 경복궁터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풍수지리가 이 상징물 전쟁의 매체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전국에 흩어진 조선조 지방관가의 위치와 건물 또한 풍수를 이용한 지방관아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기념비적인 건물들이었으며 이를 훼손하고 세운 일본의 관사나 신사들 또한 일본의 식민 정권의 권위를 한국인이 자연스럽게 받아 드리게 하기위한 상징물이었다. 풍수설의 이해가 없이는 이러한 한국의 경관에 깃든 상징물 전쟁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상징물 전쟁을 조사 기록 설명하는 것은 우리 지리학도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3) 풍수 속에서 볼 수 있는 환경관리 이론

현재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풍수신앙은 대체로 미신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풍수신앙 속에서 우리는 한국의 전통 환경관리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풍수신앙을 따져 볼 때 우리는 환경관리 면에 있어서 상당히 합리적인 면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개발 성장의 한계성 (limit to growth)

인간과 환경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로 대별해 볼 수 있는 데 그 하나는 끝없는 발전으로 풍요로움이 계속되리라는 견해(cornucopian theory)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과 풍요로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limit to growth)일 것이다. 이 둘 중 풍수는 확실히 두 번째 견해의 입장에 서 있다. 풍수설화에는 일정한 지형(분지) 내에는 일정한 규모

의 일정한 수의 집 (마을 크기) 밖에는 못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일정 수 이상의 집이 들어서면 재앙이 닥쳐서 더 이상의 집을 못 짓도록 한다는 전설이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 선창리 마을 전설에 마을의 집 수(호구 수)가 40호를 넘으면 마을의 운수가 기울고 집수가 40호이하로 내려오면 운수가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 이러한 적정수의 호수는 이곳의 풍수형국이 배 모양인데 그 배(지형) 크기로 봐서 배에 실을 수 있는 짐(집 수는)은 40호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선창리 전설을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전라북도편은 재보자가 옆에서 금방 이야기 해주고 있듯이 실감나는 사투리로 다음과 같이 전한다(p.592):

> 선창리는 옛날에 배가 드나 들던 선창이 있어서 선창리라고 부르게 됐다고 한다. 이동네 동북쪽에 있는 복골이라는 산날망에 가 보면 배를 맺던 자리가 있다.
>
> 이 동네 사람들은 기질이 괄괄하고 꺼뜻하면 큰 소리를 잘 지르는듸, 이것은, 옛날으 바대사람으 기풍을 쭈욱 이어 받어 내려오기 땜이라고 한다.
>
> 선창리는 동서로 두 부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듸 서쪽 부락을 양선이라고 하고 동쪽 부락을 음선이라고 한다. 음선부락은 백여호가 사는 큰 부락이지만 경제적으로는 40호밖에 안되는 양선부락만 못하다.
>
> 양선부락은 호수가 40호가 넘으면 동내가 쇠퇴해지고 호수(戶數)가 줄다가 몇해가 지내면 도로 흥해서 호수가 느는듸 40호를 넘지 않는다. 그리서 양선부락은 늘 40호 정도로 사는 부락이다. 이 까닭은 여그가 배 형국이라서 그런다는 것이다. 배는 짐을 많이 실으면 지우러져서 가란게 되는 법이라 호수가 많으면 지울 것이 아닌가(1193. 선창리, 1969년 8월 5일 전라북도 장수군 정면 선창리 양선부락 裵尹詵).

위 전설은 주어진 자연환경내에서 적합한 취락규모를 40호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이상은 그 지역 환경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풍수적 진단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풍수적인 형국형태 또는 형국의 크기에 따라 인간이 그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의 한계점을 제시한다는 것은 중요한 한국형 개발성장의 한계성(limit to growth) 사상을 내포하고 있고 한국형 환경관리의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윤홍기, 1976, 150). 이 사상은 다음에 검토될 자연은 쉽게 부서 질 수 있다(nature is vulnerable)고 보는 풍수사상과 직결된 것이다.

(2) 쉽게 다치는 자연(nature is vulnerable)

자연은 인간의 힘으로 파괴될 수도 있고 다시 치유될 수도 있다는 면을 풍수 설화는 잘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풍수에서는 자연을 의인·의물화하여 인식한다는 면과 땅속을 흘러 다니는 생기(生氣)는 유동적이지만 일정한 풍수조건이 충족된 장소에는 고여 있다가 인간에게 활용된다는 풍수원리 때문이다. 생기가 고여 있도록 주위 환경이 풍수적으로 잘 조화되어 있는 땅을 사람들이 도로를 낸다든지, 광물을 캐기 위해 굴을 판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물을 판다든지, 산에 있는 큰 바위를 깨트린다든지 하는 행위로도 풍수적인 환경의 조화는 깨질 수 있다고 풍수신앙은 가르친다. 이렇게 파괴된 자연은 또 사람에 의하여 쉽게 고쳐질 수 있는데 깨어진 바위를 도로 붙이고 판 우물을 메꾸는 것 등으로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고칠 때 자연과의 조화는 소생되어 파괴되었던 풍수형국이 다시 복구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 한 예로서 경북 안동군 임화면 미질동 수다산에 있는 고성 이씨 조상의 묘가 '누워 있는 소(臥牛形)' 형국인데 발복하여 크게 벼슬한 후손들이 많이 나왔다. 그 고관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방문할 때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행차를 준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 소의 쇠죽통에 해당하는 바위를 깼을 때 발복이 중단됐다고 한다. 이것을 나중에 알아 차린 고성 이씨 집안이 바위를 다시 붙이자 발복이 다시 계속되었다 한다(주간조선, 1971, 28). 이 이야기는 바로 풍수에는 자연은 쉽게 상처 받기 쉬운 존재이기도 하고 또 쉽게 회복될 수도 있는 존재로 보는 사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개념에 관계되는 연구과제는 실로 많다고 생각된다. 풍수 설화에서, 또는 풍수서(산서)에 실린 풍수 이론 등에서 현대환경사상과 환경관리방법에 유용한 개념을 집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3) 자연은 의인화·의물화된 시스템으로 기능한다

풍수에서는 지역전체의 경관 또는 그 일부를 일종의 시스템으로 본다. 이것은 바로 자연환경을 의인화 또는 의물화하여 인식하기 때문이다. 풍수에서는 혈(명당)의 주위 환경을 풍수형국으로 파악하는데 사람이나 동식물이나 인간이 만든 물건형

상 등으로 견주어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 자체를 그러한 물체인 것같이 취급하곤 하였다. 형국은 인간 자체의 형상으로 여자(옥녀)가 머리 풀고 있는 형, 장군이 맞서 앉아 있는 형 등이 있고, 동물 또는 식물의 형상으로 닭(금계)이 알을 품고 있는 형, 매화가 땅에 떨어져 있는 형 등이 있으며, 인간이 만든 물건 형으로 배가 떠가는 형 등 수없이 많은 형국이 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태도는 한국인의 재래 환경관리 사상과 인간 생태학적인 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한 고장(도시나 마을)의 주위 환경이 행주형, 즉 둥둥 떠가는 배 모양으로 인식(예: 평양)될 때, 우물을 파는 것이 뱃바닥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어 우물 파는 것을 금하고 강물을 길러 식수로 사용하였다. 한 고장의 지세(풍수형국)가 행주형일 경우 그 마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우물을 파는 것을 금하는 경우가 전국 각지에서 자주 찾아 볼 수 있다.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은 그 한 예로서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전라북도편은 다음과 같은 한 시골 할아버지의 견해를 생생하게 전한다(p.592):

> 무풍은 지형 형국이 행주형이라 캄니다. 그리서 이 골서는 샘을 몬파게 하지요. 배에 구멍이 나면 씨겠능기요….
>
> …… (1193. 2 무풍, 1969년 8월 10일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河千秀)

이러한 사실은 전국 곳곳에 흩어진 행주형 형국의 마을에서는 우물 파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그곳 주민의 공중위생에 심각한 악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풍수를 매개체로 한 한국인과 한국의 자연과의 관계는 참 흥미롭고도 특이한 문화생태학 분야의 연구주제인 것이다.

(4) 나무 심기와 하천관리

풍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나 마을 주변산야의 산림 보호나 하천 관리 등은 눈여겨 공부해야 할 한국의 재래 환경관리 방법이라 하겠다. 그 동기는 비록 미신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난개발을 막고 도시주위 녹지를 보호하며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세종 26년 1444년 11월에 집현전의 이선로는 동림조담(洞林照膽)에 명당수에서 악취가 나면 후손에게 나쁘다는 말을 인용하여 서울시내 하천에 쓰레기 버리는 것을 금지하기를 상소하였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왕은 한성부낭청(漢城府郎廳)과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에 명령하여 하천을 청소하고, 시민들이 하천에 쓰레기를 못 버리게 순찰하도록 한 기록이 있다(세종실록, 106권, 25).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풍수적으로 중요한 수도 주위 산에 나무를 베는 것을 금하고 그러한 산에 인접하여 집을 짓지 못하게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그러한 산에 나무를 심는 예가 여러 번 보인다(Yoon, 1976, 118-121). 이러한 사실에서 그 의도는 어떻든 간에 현시대 용어를 빌려 환경친화적이고, 조화되고 제약적인 개발을 우리 선조들은 풍수를 통하여 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관리방법의 조사정리는 참으로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생각한다.

(5) 풍수비보

풍수비보는 서양환경사상사적인 면에서 볼 때 참 흥미롭고도 특이한 환경사상이자 환경관리방법이다. 서양환경사상의 특징은 인간과 자연관계에 있어서 항상 일방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능동적으로 영향을 주고 다른 쪽은 수동적으로 그 영향을 받아들여 적응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환경 결정론은 자연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주장하고, '인간이 지리적 환경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상'은 그 반대로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동양의 풍수사상에서는 이 비보사상 때문에 인간과 자연이 모두 동시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면, 다시 말하면 둘 다 능동적이자 수동적인 면을 보여 주고 있다(Yoon, 1976, 218). 풍수사상에 의하면 근본적인 길지의 조건은 자연의 산물이고, 자연이 제공하는 길지를 사람이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는 자연이 인간에 대해 능동적이고 영향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완벽한 길지 형국이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풍수사상에서는 주어진 길지의 자연적인 결점을 인위적으로 약간 보강할 수 있는 면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자연조건 보강권을 풍수비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능동적인 영향력

을 행사한다. 일차적으로 자연이 결정한 길지를 찾아 적응하고 이차적으로 자연의 결점을 인간이 보강해가며 사는 방식이 풍수적인 인간과 자연의 관계였던 것이다.

최근 발표된 최원석의 풍수비보에 관한 학위논문에 의하면 영남의 풍수비보 종류로는 사탑, 조산(造山), 숲, 수구(水口), 상징조형물, 지명 및 놀이 비보등을 들고 있다(최원석, 2000, 178). 이러한 영남의 비보 형태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비보 유적을 조사 기록하고, 그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류하며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에서 쓰여진 풍수비보의 원리들을 중국의 그것들과 비교 대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설명해내는 것은 대대로 이어온 한국의 문화경관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자연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데에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골 동네인 경우 마을 앞에 숲을 조성하여 동수 읍수 등으로 풍수비보를 하여온 것은 지리학자, 김덕현 및 최원석에 의하여 상당한 연구의 진척이 있었다(참고문헌 참조). 앞으로 이 분야에 많은 연구가 기대된다. 한반도 전체의 비보 조사연구는 우리 조상들의 환경사상과 환경관리 지혜를 더듬어 올라가 가늠할 수 있고 세계 학계에 공헌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알아 본 바와 같이 우리 선조들이 풍수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한 면이나, 나무를 심고 숲을 보호 유지해온 면이나, 조그마한 동산이나 돌무덤까지 만들어가며 환경을 보강하려고 한 노력은 한국의 풍수적 환경관리 이론으로 전해져 내려 오고 있다. 우리 조상의 이러한 자연과 대화를 통한 조화를 이루어 살려고 애쓴 사실은 조사 연구하고 음미할 필요가 많다고 생각한다

4) 한국인의 의식 구조(정체성의 이해)

풍수는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이는 한국인의 종교윤리와 풍수지리설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국인의 환경인식체계의 밑바탕에는 풍수지리설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1) 한국종교와 윤리관

풍수는 한국의 종교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얽혀 있다. 예를 들면 불교나 유교는 풍수를 이용해 절터나 향교 또는 사당 터를 잡았고, 민중이 실행한 풍수신앙의 생생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풍수설화에는 한국사회에서 숭상해 온 유교윤리, 특히 효 사상과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사상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 오래도록 유교이념은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사상이었으며 불교는 한국인의 신앙으로 자리잡아 온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유교, 불교적인 윤리에서 볼 수 없는 비유교적이고 비불교적인 윤리관이 풍수 설화에는 상당히 용납되고 있는 것은 놀랍고도 흥미로운 일이다. 예를 들면 유교나 불교 윤리로 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짓, 즉 잔꾀를 부리거나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풍수설화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용납되는 면이 보이지만 제제를 당하는 면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유씨 집안으로 시집간 안동 김씨 딸이 자기 시아버지의 무덤을 명당에 쓰기위해 자기 친정집안이 가지고 있는 명당을 술책을 쓰고 속여서 차지하는 것(최상수, 353)이나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 친구를 속이고 먼저 죽은 북청 연덕산의 진씨 이야기(주간조선 1971년 9월 12일)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설화에서 부모를 위한 자식의 희생을 요구하는 유교윤리관인 효사상에 정 반대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이 풍수설화에는 보인다. 예를 들면 선조대왕때 평안도에 이씨 집안에서 일하던 허씨 가족은 하도 가난하여 세 아들이 장가도 못들고 있었다. 이 자식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허씨 가족이 짜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명당을 술책을 써서 차지하기로 하였다. 들에서 주인집 논의 새를 쫓던 허씨 부인이 주인이 들에 나올 때쯤 일부러 새는 안 쫓고 조는 척 하다가 주인한테 야단맞았다. 이에 할미는 일부러 소스라쳐 놀라는 척하며 떨어져 죽었다. 이에 허씨 가족은 할미가 주인이 야단쳐서 놀라 떨어져 죽은 것이라고 우기며 주인에게 살인죄로 고소 않을 테니 명당자리를 달라고 하여 명당을 차지 하였고, 그곳에 어머니의 묘를 쓴 허씨집안 자손들은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다(주간조선, 1971년 9월 12일).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면이 한국문화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윤

리관념이 유교나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이전부터 있어 온 우리 민족의 원시 사회의 잔재는 아닌지, 또는 중국 풍수 설화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알아 볼 만한 일이다. 풍수 설화는 한국인의 의식구조 이해에 중요한 자료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및 해석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풍수, 특히 음택 풍수를 실행하는 목적은 주로 유교에 근거를 둔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후손이나 자기 자신이 발복을 받기 위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일찍이 프리드만(Maurice Freedman)은 말하기를 중국풍수에서 조상의 묘터를 잡는 것이 조상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후손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Freedman, 12). 실제로 풍수서(山書)를 읽어 보면 발복의 형태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자손이 번창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관리로 출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자기나 자손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죽은 조상이 직접 복을 받아 사후 저승에서의 생활이 복되게 된다는 것은 어느 풍수서나 풍수 이론에도 없다. 풍수설화를 살펴 보아도 묘지의 발복은 항상 그 무덤의 자손이 그 명당에 자리잡은 조상의 묘 덕분에 어떻게 어떻게 잘 되었다는 식이지, 그 묘에 묻힌 조상이 그 묘지 덕택에 보다 좋은 사후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내 생각으로는 효도를 앞세워 명당을 찾아 조상 묘를 쓴다는 것은 죽은 조상을 핑계로 해서 살아 있는 자신과 자기 후손들의 번영을 확보하려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을 드는 것이 아닌가 한다. 풍수의 발복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의 복락에 연연하는 것이지 사후 저승에서의 복락에는 관심이 없다. 죽은 조상도 오직 현세의 살아 있는 자손들의 복락을 구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일 따름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풍수는 철저한 현실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풍수설화의 해석 및 음미를 통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알아 보기 힘든 한국인의 심성(mentality)을 찾아 볼 수 있다.

(2) 땅을 보는 인식 체계의 틀

풍수는 한국 재래문화에 있어서 땅을 보는 마음의 기본 틀이었다. 지금 우리가 공기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듯이 우리 조상들은 산을 보고 그 형태를 분류할 때 그 모양에 따라 화산, 수산, 목산, 금산, 토산으로 나누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었다. 이것은 소박하지만 풍수적인 지형 분류 방식에 해당하는 민속지형학(folk geomorphology)이라 할 수 있고 지형의 형태(산 모양)를 풍수적으로 파악하여 땅을 보는 심성(geomantic geomentality)이라고 한 수 있다.

만약 우리에게 한 천평의 빈터가 있는데 이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고자 할 때 이것을 앙드레 르 노트르(Andre Le Notre)같은 서양 정원사에게 부탁하면 베르사이유 궁전 정원 같은 모든 것이 기하학적으로 도형화된 정원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을 일본정원사에게 주면 서양과 반대로 아름다운 자연을 모방한 정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에게 똑 같은 빈터를 주고 정원을 만들라면 아마 그 빈터를 버리고 비원과 같이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 담장을 둘러 자연상태의 정원을 만들리라. 이 세 가지 정원 뒤에는 세 개의 다른 지오멘탈리티(geomentality) 즉 땅을 보는 마음의 기본 틀이 있다. 그 서양식 정원 뒤에는 문화적(인공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보다 아름답고 인간의 자연지배는 당연하다는 서양 전통적인 마음이 있고 한국과 일본의 정원에는 서양적인 사고와 대조되는 자연적인 것이 문화적인 것 보다 더 아름답다는 동양사상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동양적인 사고방식의 바탕에는 풍수사상이 깔려있다. 일본 정원도 자연주의를 표방한 자연을 모방한 정원이되 모든 것을 인공적으로 조성했다는 면에서는 서양과 같다. 한국문화에서는 인공적으로 자연을 모방하여 정원을 조성하기보다는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 담장을 두르고 적당한 곳에 작은 정자를 짓고 개천에 다리를 놓고 작은 연못을 파든가 하지만 정원의 원구도는 자연 그 자체를 그대로 쓴다고 한다. 이는 비원이나 소쇄원을 봐서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인의 땅을 보는 마음과 땅을 이용하는 마음에는 풍수사상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윤홍기, 1987). 이러한 한국인의 지오멘탈리티를 조사연구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생각된다.

한국인은 고향(의 경관)을 사랑하는데 이 고향

사랑의 바탕에도 풍수사상이 중요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풍수적인 지형분류법과 풍수적인 환경평가법 및 풍수적인 좋은 땅 찾기와 만들기 등은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에서 우리는 바람직한 현대생활에 유용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끌어 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상 간단히 이야기해 본 연구주제는 결코 중요한 것들을 총망라한 것이 아니고 나 개인의 연구관심을 중심으로 알아 본 정도에 지나지 않다.

4. 마무리

만약 한국지리나 한국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풍수지리가 중요한 연구주제인 것을 알고도 잘못하면 풍수(지관)로 몰리거나, 풍수지리를 연구하면 지리학이 풍수지리로 오인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분야의 연구를 꺼리고 있다면,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구는 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확실히 지리학자는 지관으로 매도되어서는 안되고 현대지리학이 풍수지리설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풍수지리설은 한국 지리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한국 지리학은 풍수지리를 연구하여 학계에 공헌해야 할 학문적 사명을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학문적인 임무를 다른 학문 분야에 넘길 수는 없다.

풍수지리설이 옳고 그름은 신앙 차원의 문제이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따져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지리학자 또는 한국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풍수지리설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풍수지리가 한국문화(특히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경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지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풍수지리설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풍수신앙이 한국 사회에 미친 병폐는 대단하다. 재래 풍수 신앙은 근절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게 쉽게 없어질 것 같지 않다. 현대 환경사상과 환경관리방법은 일부 풍수원리에서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학문을 한다는 것이 사물을 객관화하여 따져보고 설명하는 것이라면, 또 풍수지리신앙이 한국문화를 형성해 오는 과정(게임)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면 이 풍수게임에 대한 풍수관전평은 풍수신앙을 객관화하여 여러 측면에서 심도 있게 써져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역사문화지리를 보다 의미있게 연구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지리학자들은 학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풍수관전평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지리학의 성격이나 쌓아온 전통으로 보아 풍수지리설 자체와 그것이 한국문화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설명해 낼 수 있는 저력이 있다. 풍수지리설에 대한 연구과제는 실로 산적해 있다. 옛부터 있어온 수없이 많은 풍수게임에 대한 관전평은 지리학자가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註

1) 풍수의 원리와 기원에 대한 의견은 『한국사 시민강좌』 제 14(1994)집에 실린 졸고에 보다 자세하게 실렸다.
2) 풍수를 연구하지 않는 지리학자도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을진대 이미 풍수에 대해 글을 여러 편 쓴 사람이 쓰는 풍수에 대한 이 글을 지리학자가 아닌 사람이 읽는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논조가 어떻든 간에 일단 한 지리학자가 쓴 풍수에 관한 논문이니 풍수신앙을 옹호하는 글로 인식하거나, 풍수술서로 오인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렇게 되지않고 이 논문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

文 獻

김덕현, 1986, "전통촌락의 洞藪에 관한 연구 -안동 내앞 마을의 開湖松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13, 29-45.

金 仁, 1993, "지리학은 풍수와 동일시될 수 없다," 大學新聞, 1993년 3월 8일, 4.

李丙燾, 1948, 高麗時代의 硏究, 서울: 乙酉文化社.

최길성(역), 1990, 조선의 풍수, 민음사(村山智順, 朝鮮の風水).

崔昌祚, 1984, 韓國의 風水思想, 서울: 민음사.

郭 璞, 葬書, 臺灣: 竹林書局, 1967年版, 地理正宗에 포함됨.

尹弘基, 1994, "風水地理說의 本質과 起源 및 自然觀," 韓國史 市民講座, 14, 187-204.

尹弘基, 1995, "풍수지리의 기원과 한반도로의 도입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韓國學報, 79, 229-239.

윤홍기, 1987, "한국적 Geomentality에 대하여," 지리학논총, 14, 185-191.

윤홍기, 2001, "경복궁과 구 조선총독부건물 경관을 둘러싼 상징물 전쟁," 공간과 사회 15, 282-305.

週刊朝鮮, "風水十講 제 1화 山相," 1971년 8월 29일, 28.

崔元碩, 2000, 嶺南 地方의 裨補, 高麗大學校 大學院 地理學科 博士學位 論文.

崔常壽, 1958, 韓國民間傳說集, 서울: 통문관.

韓國文化人類學會, 1971,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전라북도편, 서울: 문화공보부.

Freedman, Maurice, 1968, Geomancy, *Proceedings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London, 5-15.

Glacken, Clarence J., 1967, *Traces on the Rhodian Shor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edfield, Robert, 1958, *Peasant Society and Culture: An Anthropological Approach to Civiliz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Yoon, Hong-key, 1975, An analysis of Korean Geomancy tales. *Asian Folklore Studies*. 34, 21-34.

Yoon, Hong-key, 1976, *Geomantic Relationships Between Culture and Nature in Korea*, Taipei: Orient Culture Service.

Yoon, Hong-key, 1980, The image of nature in Geomancy, *GeoJournal*, 4(4), 341-348.

Yoon, Hong-key, 1984, Environmental determinism and Geomancy: two cultures, two concepts, *GeoJournal*, 8(1), 77-80.

(2001년 11월 2일 접수)